

국립민속국악원 브랜드창극
'나운규, 아리랑' 시즌2

우리시대 예술인의 이야기 민족의 노래로 엮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노래 아리랑, 영화인 나운규 삶과 영화 <아리랑>을 창극으로

이 작품은 식민지 시대 고통 받던 국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던 기념비적인 영화 <아리랑>과 그 영화의 주역인 나운규의 삶을 담았다. 또한 한민족의 노래이자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아리랑을 작품에 사용했다. 창극 <나운규, 아리랑>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한 축의 이야기는 분장실에서 진행되는 과거 영화인 나운규의 도플갱어(doppelgänger)인 창극배우 나운규의 삶이 전개된다. 또 다른 한 축의 이야기는 창극무대에서 진행되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줄거리가 창극으로 재현된다. 역사 속 영화인 나운규와 현재를 살아가는 창극배우 나운규가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면서 극적 판타지를 만들어 낸다. 두 축의 이야기는 교차 또는 동시에 진행되며 두 이야기의 주인공이 죽음에 이르는 끝 장면에서는 그 경계가 무너지고 창극배우 나운규의 장례식이 치러진다.



출연하는 배우들의 소리·합창 극적 이면 가지고 가도록 작곡 대부분의 장면에 배경음악 넣어 극본에서 나운규의 천재성 부각 4개의 장을 4계절로 무대 표현

음악, 연극 등 폭넓은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온 황호준 작곡가가 음악을 맡아 모든 곡을 새로 썼다. 배우들의 소리와 합창은 극적 이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작곡되었으며 대부분의 장면에 배경음악을 넣어서 대사를 집중해서 들어야만 이해되는 장면들도 작곡된 음악의 정서적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리랑을 극적 상황에 맞게 배치하여 정서적 배경음악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용된 아리랑은 아리랑, 구이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해주아리랑, 상주아리랑으로 모두 6곡이다. 극본과 연출 면에서는 영화인 나운규의 천재성을 좀 더 부각시켰으며, 창극무대의 윤현규와 최영희의 노래가 추가됐다. 창극무대에서 마을잔치가 벌어지는 부분에는 씬름 장면을 삽입하여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풍물놀이와 소고춤이 등장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어 낸다.

다. 작품은 모두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연출은 각 장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무대를 표현하여 자연과 인생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기승전결의 극적 흐름을 받쳐준다.

▲특별한 무대, 특별한 연출, 우리의 다양한 소리와 춤이 어우러진 창극

무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분장실을 상징하는 대형 의자 오브제를 왼쪽에, 창극무대를 상징하는 원형무대를 오른쪽에 배치했다. 이 두 무대 사이에는 아리랑 고개를 상징하는 경사로가 곡선으로 놓이고 원형무대 뒤쪽에는 시공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대형 시계가 돌아간다.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시계 바늘은 거꾸로 움직인다.

이 작품에는 영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배경막과 원형무대 오른쪽, 분장실 거울에 모두 3개의 영상이 움직인다. 이를 위해 프로젝션 맵핑 기법 및 매직미러(Magic Mirror)로 불리는 반투명 거울이 사용된다. 배경막에는 영화 속에 남아 있는 나운규의 모습과 그의 영화들이 상영되기도 한다.

창극배우 나운규가 환상 속에서 바라보는 거울은 반투명이며 조명이 따라 거울이 되기도 하고 영상이 전개되는 스크린이 되기도 한다. 거울은 나운규가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데 쓰인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반투명 거울에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부착했다.

창극 <나운규, 아리랑>에 출연하는 모든 배역은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이 맡았다. 주인공 나운규 역에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탄탄히 실력을 다져온 창극단 김대일, 정민영이 교차로 출연한다.

창극 <나운규, 아리랑>은 오는 10일과 11일 동안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열리며 전석 무료이다.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전화(063-620-2328)로 하면 된다. 특별히 11일에는 대보름 명절을 맞아, 공연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공연장 로비에서 한국총효가훈선양회의 진행으로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가 열린다. /남원=유영철 기자

영화인 나운규의 삶과 그의 영화 <아리랑> 그리고 민요 아리랑이 어우러진 창극이 공연된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영화인 나운규와 그가 만든 영화 <아리랑>을 소재로 현재를 살고 있는 창극배우의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창극 <나운규, 아리랑> 시즌2 공연을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무대에 올린다.

창극 <나운규, 아리랑>은 2015년 4월 '제1회 창극 소재 공모전'을 시작으로 3년여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지난 해 9월 초연 이후 10월까지 이어진 부산, 대구, 대전 공연에서 4,300여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시즌2에서는 초연의 성과를 바탕으로 극본을 보완하고 작곡가 황호준에게 새롭게 음악을 위촉하여 보다 완성도를 높였다.



▲대본, 연출의 보완과 황호준 작곡가의 음악으로 다시 태어난 시즌2

지난해 초연에서 이번 시즌2로 제작되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음악이다. 창극, 오페라, 뮤지컬, 무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트렌드를 읽는 SNS 마케팅' 교육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신수미 센터장)는 예비 여성창업자를 위한 '트렌드를 읽는 SNS 마케팅' 교육을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새로운 온라인 홍보기법을 활용해 마케팅 및 상품화에 적용함을 목표로 한다.

센터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창업터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온라인마케팅의 유용성, 스마트폰활용 마케팅기법, 블로그 마케팅기법, 모바일전단지 제작법, 네이버오픈마켓 스토어팜 운영법, 페이스북 및 SNS를 활용한 홍보법 등을 무료 교육한다.

신수미 센터장은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여성이 주체가 되는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대상은 창업에 관심 있는 도내 여성으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정혜은 기자

“희망의 증거들을 만나 지친 마음 위로받길”

수필가 김사는 '살아 있으니 그럼 된거야' 출간

'아픈 데는 없는 데, 암이라고 했다' 김사는 작가(사진)는 자신의 인생 사전에 한 번도 등재할 생각이 없던 유방암 판정을 어느 날 갑자기 받는다.



김, 이 순간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시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지금·여기'의 내가 전부로써 절실하다'는 마음에 이전의 삶보다 더 바지런하게 움직인다.

'암 환자에게 '다음'은 없는 법'이란 걸 체득했기에, 그녀는 혹여 상실감과 잡념이 일상을 차지할세라 좋아했던 여행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친구·지인들과의 식사 한 끼, 광장에서 물레질, 대중가요의 한 소절 그리고 평소에는 즐겨 보지도 않았던 TV까지 섭렵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머릿속을 스친 여러 생각을 작은 수첩에 옮기기 시작한다.

작가는 "일 년 남지 머릿속을 스친 생각을 옮겨 적다 보니 수첩이 꽤 두꺼워졌다.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물리 치료 등을 하면서 몸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의 갈피들을 기록하면서 암으로 고통 받거나, 암 환자를 돌보느라 힘겨워하는 이들, 그리고 현실의 삶이 녹록치 않아 버거워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픈 바람"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러 "인생의 모퉁이에서 터덕거릴 때, '살아 있으니 그럼 된거야'라는 희망의 증거들을 만나 지친 마음을 위로받길 바란다"고 했다.

작가는 현직 PD(전북방송)로서 수필가로 등단한 이후, '가요칼럼, 뽕짝이 내게 온 날' 김사는 휴먼 에세이, 그러한 것은 멀리 있지 않다'를 출간했으며 전북수필문학상 및 전북여류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혜은 기자

전주문화재단 '판소리 다섯마당 예술마을 만들기' 2016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전국 우수 선정

(재)전주문화재단(이사장 김승수)은 '판소리 다섯마당 예술마을 만들기'적격자, 산성마을에서 꽃피다'가 201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전국 우수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재단은 내년도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재단 및 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가·단체·지자체가 공동 협력하여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주문화재단은 원광대학교 연구진(문화콘텐츠학과 원도연 교수)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산성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현황과 자원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꾸려 판소리를 활용한 옛 도심재생 및 장소 기반형 문화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콘텐츠개발 프로젝트 구축·마스터플랜수립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주민들과 함께 '산성마을 동네발전&동네창극'이란 이름으로 시연한 바 있다.

향후 재단은 주민 협의체 구축을 논의하는 주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마을 공동체 복원, 마을경제 활성화, 관광동력 확보를 과제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우수과제 선정은 예술을 통한 원도심 재생과 전주의 새로운 문화관광 동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따라볼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6일>

▷쥐띠

48년생: 자신의 감정을 노출적으로 드러내지 마라.
60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니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 할 수 있다. 휴식이 필요할 때.
72년생: 자신을 낮추면 복이 된다.
84년생: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중해야 할 때이다.

▷소띠

49년생: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운이다. 긍정적으로 전진하라.
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
73년생: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
85년생: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호랑이띠

50년생: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62년생: 이력사팀에게 덕을 베풀어야 하는 운이나, 권위를 내세우다가는 자칫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86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토끼띠

51년생: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나 결과적으로는 좋다.
75년생: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운.
87년생: 급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불리하다.

▷용띠

52년생: 아랫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다.
64년생: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는 주변상황을 악화시키니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76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투기는 금물.
88년생: 타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제약을 당할 수 있다.

▷뱀띠

53년생: 지금은 나설 시기가 아닌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운이다.
65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따른다.
77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운.
89년생: 정신이 뚜렷하고 무지 않다.

▷말띠

5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 차질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매사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고자 하는 일의 70%에 만족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78년생: 자신을 낮추고 매사에 양보하는 듯 처신해야 문제가 없는 운이다.
90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이익이 있는 운이니 선심 쓰는 것이 이롭다.

▷양띠

55년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67년생: 문서에 결심이 있으니 서류나 문서를 주고받거나 계약을 하려거든 미루지 마라.
79년생: 타인이 시비를 걸어도 맞서거나 대립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91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능력만큼의 일만 처리하라.

▷원숭이띠

56년생: 사교수가 열려되니 원행은 삼가고 타인이 운전을 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쉽다.
80년생: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하지 마라.
92년생: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닭띠

57년생: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욕심내니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조심스럽게 움직여라.
69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81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니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3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투기나 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개띠

46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58년생: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후반에는 잘 풀리는 운이다.
7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는 않으나 결과는 좋은 운이다.
82년생: 인적이 따르니 매사에 혼자 판단해서 혼자 행동하지 마라.

▷돼지띠

47년생: 얻었던 땅이 녹고 꽃이 피는 춘삼월을 만났으니 할 기 있는 운이다.
59년생: 한 가지의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동시에 있다.
71년생: 처음의 고생은 나중의 행복을 위한 일이니 좌절하지 마라.
83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 고생할 운이니 미리 대비하라.